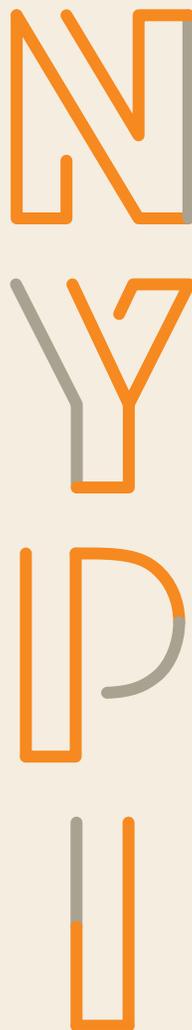


연구보고 20-R25

#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모상현



---

연구보고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코로나로 새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권리를 말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

---

저 자 모상현

발 표 자 김한, 박서빈, 김태윤, 임지우, 이진주



코로나로 새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권리를  
말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

연구보고 20-R25

<b>I. 포럼의 취지와 필요성</b> .....	1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b>II. ‘코로나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 우리 지역에서의 권리 찾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중심으로</b> .....	7
김 한   신도봉중학교 3학년	
<b>III. ‘언택트 시대, 청소년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는 계속된다. : 서울시청소년의회 활동을 중심으로</b> .....	23
박서빈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IV. ‘청소년의 꿈과 권리’ 새로운 청소년 참여제도를 실현하다.  
..... 37

김태윤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V. ‘코로나 속 피어난 우리들의 자원봉사’ 희망을 이야기하다.  
..... 49

임지우 | 동작고등학교 1학년

VI. ‘나와 다음학교’ 함께 우리의 꿈과 희망을 엿보다. ... 63

이진주 | 탈북청소년 다음학교 고등반



그림 Ⅲ-10. 본회의 포스터 .....	32
그림 Ⅲ-11. 4개의 상임위원회의 정책 .....	34
그림 Ⅲ-12. 4개의 상임위원회의 정책 .....	34
그림 Ⅲ-13. 4개의 상임위원회의 정책 .....	34
그림 Ⅲ-14. 4개의 상임위원회의 정책 .....	34
그림 Ⅳ-1. 설문조사 질문 ①와 응답 .....	41
그림 Ⅳ-2. 설문조사 질문 ②와 응답 .....	42
그림 Ⅳ-3. ....	45
그림 Ⅳ-4. ....	46
그림 Ⅴ-1. 크로커스 단원들 .....	51
그림 Ⅴ-2. 로고를 선정하는 단체채팅방 .....	53
그림 Ⅴ-3. 선정된 '크로커스'의 로고 .....	53
그림 Ⅴ-4. 크로커스 단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	54
그림 Ⅴ-5. 크로커스 단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	54
그림 Ⅴ-6. 영상 '크로커스 is 원들' .....	55
그림 Ⅴ-7. 크로커스가 제작한 독서교육영상을 보고 있는 동작구 아동들 .....	57
그림 Ⅴ-8. 크로커스가 제작한 독서교육영상을 보고 있는 동작구 아동들 .....	57
그림 Ⅴ-9. 크로커스가 제작한 독서교육영상을 보고 있는 동작구 아동들 .....	57
그림 Ⅴ-10. 크로커스가 제작한 독서교육영상을 보고 있는 동작구 아동들 .....	57
그림 Ⅴ-11.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추진단 활동 .....	58
그림 Ⅴ-12.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추진단 활동 .....	58
그림 Ⅴ-13. 청소년봉사단 크로커스 .....	61
그림 Ⅴ-14. 청소년봉사단 크로커스 .....	61
그림 Ⅵ-1. 다음학교의 통합교육 모델 .....	67
그림 Ⅵ-2. 다음학교의 통합교육 모델 .....	67
그림 Ⅵ-3. 다음학교의 통합교육 모델 .....	67
그림 Ⅵ-4. 통합교육과정 .....	68
그림 Ⅵ-5. 통합교육과정 세부사항 .....	69

그림 VI-6. 특화교육과정-타임캡슐 .....	69
그림 VI-7. 특화교육과정-공부나눔 .....	69
그림 VI-8. 특화교육과정-아침열기 .....	70
그림 VI-9. 특화교육과정-수요커뮤니티 .....	70
그림 VI-10. 진로 네비게이션 .....	71
그림 VI-11. 다음학교 보이는 라디오 .....	74
그림 VI-12. 다음학교 보이는 라디오 .....	74
그림 VI-13. 다음학교 보이는 라디오 .....	74
그림 VI-14. 다음학교 보이는 라디오 .....	74
그림 VI-15. 다음학교 보이는 라디오 .....	74
그림 VI-16. 다음학교 전경 .....	76
그림 VI-17. 다음학교 전경 .....	76



# ○ — 제1장 포럼의 취지와 필요성

— 모상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현안과 정책에 관해 스스로 주장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견해를 표명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주변부가 아닌 당사자의 관점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호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을 자신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참여를 통한 자기 주도적 활동은 청소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 할 수 있으며 성장·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역량과 시민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과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 생태계의 변화는 청소년 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정책 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UN 및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청소년을 시민성을 지닌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가늠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 이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자기 결정권

에 기반 한 권리이다.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중요 현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원에서 추진한 「10대 청소년목소리 포럼」은 10대 청소년이 직접 당사자 관점에서 수행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참여를 통한 참여경험의 확산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권리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한 공유된 경험적 지식의 확산은 청소년 스스로 참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의 권한 강화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목소리 포럼은 각기 다른 참여 환경 속에서 독특한 참여경험을 통해 축적된 청소년들의 정책적 이해와 제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 주도 중심의 참여정책연구 개발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주도적 참여에 중점을 둔 활동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 역량강화중심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본원에서 수행한 「10대 청소년목소리 포럼」은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새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권리를 말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라는 부제로 2020년 12월5일(토) 14:00~16:00에 개최되었다. 포럼 참가자는 사회 2인, 발표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의 연령대는 15-18세의 청소년으로 이루어 졌다. 포럼의 운영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Youtube 실시간 방송 송출로 진행되었다. 사회자 2인만 스튜디오에서 포럼을 진행하였고, 발표자 5인은 집 혹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원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사전 리허설을 통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10대 청소년목소리 포럼」의 발표는 총 다섯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세 주제는 청소년의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활동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 그리고 개선 및 정책제언,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서도 계속된 청소년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나머지 한 주제는 탈북 청소년의 희망 찾기이며 그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 우리지역에서의 권리 찾기를 말하다: 도봉구를 중심으로」(김한 신도봉중학교 3학년,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이다.

둘째, 「언택트시대, 청소년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는 계속된다! :서울시청소년의회 활동을 중심으로」(박서빈 서울여자상업고 2학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다.

셋째, 「청소년의 꿈과 권리, 새로운 청소년 참여제도를 실현하다」(김태윤 서울국제고 3학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이다.

넷째, 「코로나 속 피어난 우리들의 자원봉사 희망을 이야기하다」(임지우 동작고등학교 1학년,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크로커스)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다음학교, 함께 우리의 희망과 꿈을 엿보다」(이진주 탈북청소년 다음학교 고등반)이다.

본 포럼을 통하여 서로 다른 참여 및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와 자기주도성에 기반 한 경험적 지식을 공유 할 수 있었다. 제6차 청소년 기본정책의 주요 의제라 할 수 있는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환경 마련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의 참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청소년 주도성 강화 및 실제적 참여 수준 및 요구를 반영한 참여정책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0대 청소년이 처해 있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당사자 중심의 다양한 참여경험과 이를 통해 제안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인 중심의 청소년 정책의 한계를 지양하고, 수혜자로서의 청소년의 모습이 아닌 당사자로서 그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경험의 맥락과 이를 주제화하여 제시된 정책적 단초와 아이디어는 기존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된다.



○———— 제2장 ‘코로나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 우리 지역에서의 권리  
찾기를 말한다.: 도봉구를 중심으로

———— 김 한 | 신도봉중학교 3학년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



## 2

# ‘코로나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 우리 지역에서의 권리 찾기를 말한다. : 도봉구를 중심으로

2016년 11월, 도봉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과 협력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시켜나가는 도시이다. 이때 말하는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에 따라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도봉구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만들었다. 2017년에 제1기 의회가 발대식을 열며 그 역사가 시작됐고 현재 2020년까지 제4기 의회가 운영 중이며 2021년 제5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도 진행 중이다.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도봉구 소재 학교 재학 중인 11~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모집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의원들은 서울 도봉구 청소년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나아가 정책·예산·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치구 청소년의회의 역할을 수행 해나간다.

매년 50명 내외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복지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뉜다. 상임위원회 별로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구성된 보좌진(멘토)이 1명씩 배정되어 회의 진행 등을 돕는다.

2017년 제1기는 4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됐고, 조례제정임시팀

(TF)을 운영해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초안을 작성했다. 그 다음해인 2018년 제2기는 39명으로 구성됐다. 제1기 때는 탁상공론식 참여였다는 아쉬움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했고, 서울시 아동정책박람회에 처음 참가하게 됐다.

2019년 제3기는 44명으로 구성됐고 청소년예산학교라는 예산 관련 교육과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한 심의도 시작했다. 2020년 제4대는 청소년의원 45명, 청년보좌관 6명인 총 51명으로 구성했다. 기존에는 구청교육지원과에서 의회를 직접 운영했는데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인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와 연계해 의회 활동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즉 주최는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가 주관은 도봉구청이 하게 됐다.

###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조직도



그림 II-1.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조직도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들의 첫 활동은 바로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이다. 사전교육에선 왜 정책을 만들고 참여해야하는지와 같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의 권리교육 중 참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동권리 교육, 그리고 예산·정책교육 등 유익한 교육들을 진행한다. 또한 의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진행한다. 컵을 고무줄로 옮기는 협동 활동부터 포스트잇으로 서로의 장점을 써서 내는 친목 활동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어색함을 풀고 친해졌다.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두 차례 진행한 뒤에는 4월 중에 발대식을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의원과 보좌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의원 선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2019년까지는 의장단 서기, 상임위원회 간사도 선출했으나 역할 부재로 2020년에는 축소하여 진행했다.

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로 배정하여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첫 회의를 열게 된다. 이때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의원들에게 각 분야에 대해 안내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회의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정책 안건을 논의하기도 한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략하게 첫 회의를 진행한 뒤 구 의회 견학을 하게 된다. 도봉구 의회는 도봉구청 바로 옆에 있기에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 구 의회 견학을 통해 청소년의원들은 지방 의회 및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교육 받게 되고 구 의회의 다양한 회의실도 미리 볼 수 있다.

의회의 첫 번째 꽃은 상임위원회 소모임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달마다 1번 이상 소모임을 개최하는데,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점을 나누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토의하며 회의를 한다. 이때 보좌관이 회의 내용 기록하고 진행한다. 토의했던 내용 중 정책 안건으로 제작할 사안들을 추리고, 정례회에 상정할 정책 안건을 작성하고 다듬는다. 상임위원회 별로 2개의 정책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이후 워크숍의 일종인 임시회의가 열린다.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별 정책 제안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동료의원끼리 피드백을 하기도 하며 자치구 협치조정관과 퍼실리테이터를 초청해서 정책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

성, 유사정책은 없는지 등을 검토 받는다. 상임위원회는 임시회의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안을 수정하고 보완하게 된다. 다른 상임위원회 정책 안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거나 반대 의견 작성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의 두 번째 꽃은 정례회이다. 정례회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활동이다. 구 의회 본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 되는데, 지방의회 본회의 형식을 본떠 각 정책 안전을 상정하여 심사보고하고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을 거쳐 거수투표 의결하게 된다.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구청 담당부서에 전달되며 구청담당 부서에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 외의 활동으로는 아동권리 홍보부스 운영이 있다.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는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이다. 주로 5월에는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에서, 7월에는 창의과학축전에서, 9월에서 10월에는 청소년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왔으며 서울시 아동권리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거나 내용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림 II-2, 3.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그림 II-4, 5. 발대식



그림 II-6. 상원 위원회 소모임



그림 II-7. 정례회



그림 11-8, 9. 홍보부스 운영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까지 연결해냈다. 2017년 제1기 의회에서는 화장실 비누를 교체하는 성과를 냈다. 당시 학교 화장실 대부분은 막대 끝에 비누가 달린 막대형 비누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적으로 닿아 위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누르면 물비누가 나오는 펌핑형 비누로 교체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검증을 거치자는 정책이 발의됐다. 안건이 통과되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학교에서는 바로 반영시켜 모두 펌핑형 비누로 교체했다.

2018년 제2기 의회에서는 청소년시설 개선에 주목했다. 구 내 청소년시설은 오로지 도봉구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지만 점점 청소년 이용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러한 구 내 청소년시설 이용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2년 후인 2020년, 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포럼이 개최되어 실질적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제3기 의회에서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안전이 성과가 컸다. 구 청소년에게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문화탐방코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이 통과가 됐고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실제로 역사문화탐방코스 문화재를 안전하게 탐방하기 편하도록 시설이 개선됐다.

2020년 제4기 의회는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내기위해 현재 각 부서에서 열띤 논의를 펼치고 있다.

많은 청소년의원들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한다. 먼저 민주시민으로서 길러야만 하는 기본 소양을 기르게 됐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인데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통해 쉽고 재밌게 정치참여에 다가갈 수 있었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바뀌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의회활동 외에도 부가활동이 많아 좋은 경험이 됐다. 서울시 정책박람회에 참가해 서울시 여러 구의 어린이·청소년들과 정책 논의하기도 하고 전국어린이청소년의회워크숍과 현장탐방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다.

## 2020. 여름에서야 시작된 참여의 봄

2020년의 참여의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이관할 정도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정을 미루거나 활동을 축소 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는 3월 말 봄이면 사전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4월에 발대식을 실시했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모두 멈추었고, 4월에서야 힘들게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5월 초에야 겨우 의원들을 구성할 수 있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6월 초에 오리엔테이션과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했다.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럼에도 의회가 구성된 뒤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카카오톡방에서만 인사를 나눴던 의원들이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청소년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는 사례 등을 교육받으며 우리가 맡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깨닫게 됐다.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2차 소양교육을 통해서도 아동권리와 참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프라인보다 낯설고 집중하기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27일에는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을 할 수 있었다. 연합워크숍이란 도봉구를 대표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인 어린이·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참여위원회가 모여 함께 만남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원래는 봄에 열렸어야 할 활동이었지만 여름에서야 열렸기에 행사이름을 '여름에야 시작된 참여의 봄'이라고 정했다. 여전히 대면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대체됐고, 각 참여기구를 대표하는 청소년 몇 명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활동 다짐문을 낭독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지켜봤고, 랜선포크 시간에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열의를 전달했다. 당시만 해도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나아져 의원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만날 수 있었지하는 설렘과 희망으로 활동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일정은 빠듯하기만 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같이 구청에서 모여 하던 오프라인 회의를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했고,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축소했다.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에 앞서 평소 불편했던 점에 대해 나눴다. 그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발전시키면 좋은 건 무엇일지 나누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진 8월 초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일정을 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첫 대면 활동으로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플라스틱 가림막 속에서 마스크를 한 상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이긴 했지만 카메라 너머로만 만나던 얼굴들을 직접 마주하니 반갑고 설렘다. 그 덕에 더 적극적인 태도로 협치조정관과 함께 정책 제안을 점검하고 피드백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림 11-10. 온라인 회의



그림 11-11. 워크숍 '여름에야 시작된 참여의 봄'



그림 11-12. 오프라인 회의- 청소년의원들이 플라스틱 가림막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주 잠시였다. 2차 대유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8월 19일로 예정되어있던 정례회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의회활동의 꽃인 정례회가 연기되면서 상심이 컸지만 9월 19일에 열린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가벼운 친목 도모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축제 취소로 홍보부스 운영까지 취소되고 말았다. 의회 시작부터 활동 진행 내내 일정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다보니 모두가 지쳐가는 느낌이 들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의견을 나누던 일상이 정말 그리워질 정도였다. 다수가 집에만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실에 지쳐갔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동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의회는 할 수 없게 된 오프라인 홍보부스 운영 대신 온라인상에서 아동권리 캠페인을 기획해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집에서 느끼는 가을, 노래 추천 playlist’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을을 느끼기 어려워진 청소년을 위해 집에서라도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가을 노래를 선정해 추천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집콕 시대, 집에서 어디까지 놀아봤니?’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의 실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기획 하게 됐는데, 빙고판을 만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고 빈 빙고판에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집콕 상황을 써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청소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 진심을 담은 캠페인 활동이었다.

10월에는 ‘제1대 도봉구 청소년 선거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 의회까지는 도봉구에서 매년 2월에 공개모집을 열어 신청학생들 중 의원을 선발해왔다. 희망자가 구청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신청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었다. 2021년 의회부터는 청소년이 직접 선거에 나오고, 청소년이 직접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 선거를 개최하여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았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6개 정당이 참가했다. 선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

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1대 도봉구 청소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규정을 제정해 안내하기도 했다. 3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해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회 경고, 3회 경고 누적 시 정당 해체 및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영상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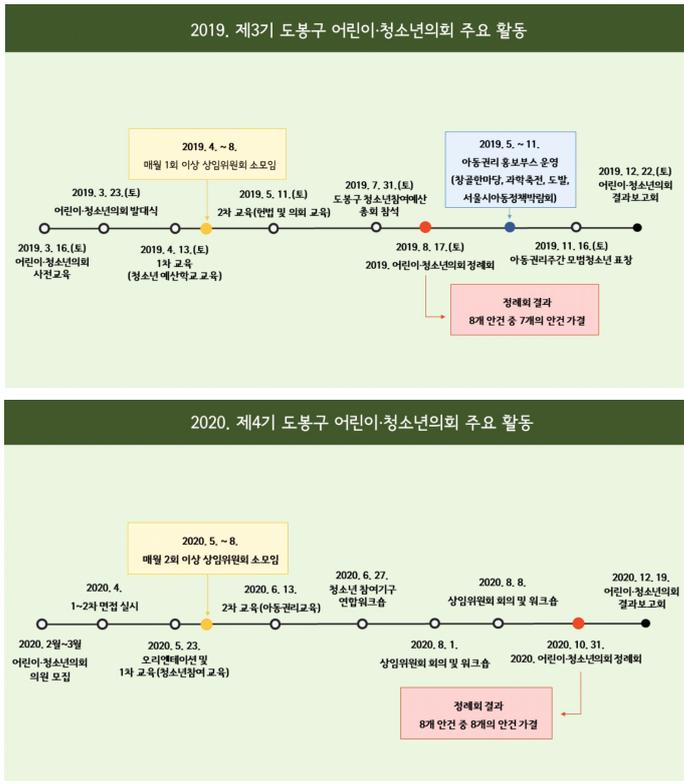


그림 11-13, 14. '모집'에서 '선거'로 변화한 포스터

여전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0월내에 온라인으로 정례회 리허설을 진행했다. 그리고 10월 31일, 드디어 정례회를 개최했다. 워크숍을 진행했던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어서 진행했다. 대표 의원들이 오프라인 장소에 나와 발표를 했으며 다른 의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됐고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가결된 8개의 안건은 모두 도봉구청에 전달됐다.



그림 II-15.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정례회



출처 :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그림 II-16, 17. 2019년, 2020년 주요활동

모두에게 2020년은 힘겨운 한 해였다. 어쩌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회의를 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건 다행일지 모른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단점은 있었다. 회의를 할 때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쉽게 트이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프라인에서 여러 번 친목활동을 한 사이가 아닌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알게 된 사이라서 더욱 그러했다. 분위기가 어색한 탓에 쉽게 지루해지는 면도 컸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회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자신이 편한 공간인데다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쉽게 집중력이 흩어졌다.

워크숍이나 정례회처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활동 시에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참여자들이 소외됐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오프라인 회의 시에는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하긴 했지만 말을 하며 진행하는 회의의 특성 상 100% 완벽한 거리두기는 불가능했다.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지, 나아진다면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대안은 여러 단점이 있다 해도 온라인 진행이다. 온라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자나 청소년의원 스스로가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서라도 활발히 토론 및 활동을 진행해나가야만 한다.



○———— 제3장 ‘언택트시대,  
청소년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는 계속된다.:  
서울시청소년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 박서빈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부회장



# 3

## ‘언택트시대, 청소년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는 계속된다. : 서울시청소년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바뀐 지 벌써 11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평소처럼 청소년활동을 이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기에도 여러 난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가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 청소년의 참여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 규칙을 정하였고 제1장(총칙) 제2조(기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청소년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교육청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이다. 이처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6년 9월 11일 제1대 개원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제5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제1대는 교육, 권리, 문화, 복지, 환경 상임위원회로 이뤄졌고, 2017년 6월부터 시작한 제2대는 권리, 교육·인식, 인권·평등, 복지·사회 상임위원회로

이뤄졌다. 2018년 6월부터 시작한 제3대 청소년의회는 인교육, 문화·참여, 생활 복지, 인권·윤리 상임위원회, 2019년 6월부터 시작한 제4대는 교육진로, 문화여가, 복지권리, 사회활동 상임위원회로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주제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020년 6월부터 시작한 제5대는 문화, 복지·권리, 안전·건강, 진로 상임위원회로 4개의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의장단은 의회의 전반을 총괄하며 의장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슬로건은 ‘청소년에게 한 걸음, 소통하는 의장단’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의장단이 아닌 언제나 열려있는 의장단이 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의장단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음을 다해 소통하고자 한다.

문화 상임위원회 걸쳐-쇼는 제대로 된 청소년 문화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Culture-Show가 보여주는 Culture shock”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1명, 부상임위원장 1명, 의원 22명으로 구성했다.

복지·권리 상임위원회 복권은 “로또보다 연금 같은 복지”가 슬로건으로 복지는 로또처럼 단발성이 아닌 연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임위원장 1명, 부상임위원장 1명, 의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안전·건강 상임위원회 세레니티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제안을 통해 안전지킴이가 되겠다는 의미로 “Serenity 방법대 : 안전을 찾아서”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상임위원장 1명, 부상임위원장 1명, 의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진로 상임위원회 청진기는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검진하자”를 슬로건으로 한다. 기존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검진하는 의미이다. 상임위원장 1명, 부상임위원장 1명, 의원 15명으로 구성했다.

## in COVID- 19, 활동



그림 III-1.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활동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2월부터 4월까지 의원을 모집하고 6월에 개원식을 연다. 6월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회의 운영, 예비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실제 정책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회 및 평가회의로 임기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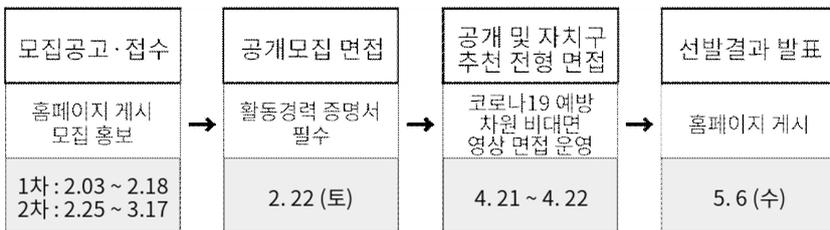


그림 III-2. 의원모집 일정표

먼저, 의원모집은 서면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아 심사한다. 원래대로라면 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 제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면접까지 영상으로 진행해서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총 84명의 의원이 선발됐다. 3월부터 모집을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많아지며 모집도 늦어지고 활동 시작도 많이 미뤄졌다.

구분	공개	자치구 추천	합계	총합
만 9세 ~ 12세	4	2	6	84
만 13세 ~ 15세	19	20	39	
만 16세 ~ 18세	18	16	34	
만 19세 ~ 24세	4	1	5	

그림 III-3.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표

어려운 상황 속에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가 구성됐다. 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해야했지만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의회의 첫 번째 활동인 개원식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의원들은 각자 집에서 개원식에 집중하여 참여해주었고 진짜 청소년의회의 일원으로 의원 선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이지만 2019년 활동 임원 중 우수임원에게 표창도 했다. 의회에 대한 기본 설명과 활동 소개를 했고, 사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친 터라 각 상임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도 설명했다. 이렇게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원활동이 시작됐다.



**제5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자격 : 만9세 ~ 24세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임기 : 위촉 후 1년

선발 인원 : 83명 (공개 44명, 추천 39명)

주요활동

- 정기활동 (개원식, 예비회의, 본회의, 평가회의)
-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 등)
- 청소년 정책아카데미
-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
- 청소년참여 활동 조력자(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배치

서울시의 청소년활동 정책수행의 중심기관

그림 III-4, 5. 온라인 개원식

회의 전에는 임원진 선거를 진행했다. 의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진은 의장단 1명, 부의장 2명, 4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1명씩, 부위원장 1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원래라면 개원식 후에 바로 진행했겠지만 개원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선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상임위원회의 첫 회의는 7월에 진행됐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하여 진행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서 제안 할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8월에는 첫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키며 온라인 회의에서 정했던 청소년 정책을 구체화했다. 의장단 또한 오프라인 회의를 모두 참관하여 앞으로 있을 예비회의와 본회의를 준비했고,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그림 Ⅲ-6. 온라인 회의



그림 Ⅲ-7. 오프라인 회의

온·오프라인회의를 모두 해보니 서로 장단점이 명확했다. 온라인 회의는 참석률이 높지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이 어려워서 의원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온라인 회의 이전에 한번이라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관계가 없어서 더욱 힘들었다. 반면에 오프라인 회의는 참석률이 조금 낮더라도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은 훨씬 좋았다. 효과적인 회의방식은 오프라인이었지만 앞으로 자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온라인 회의를 정착하기 위해 임원진들이 리더 역할을 잘해주었다.

예비회의는 본회의 준비 단계로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별 상정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운영한다. 진짜 본회의처럼 의장이 진행하며 상임위원회장이 정책을 발표한다. 부의장들은 청소

년정책 이슈에 대해 자유발언을 한다. 의장단은 전원 참여했고 상임위원회 별 지원자 2명씩 참여했다.

청소년의회 활동의 꽃인 본회의는 청소년의회 의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의결 과정을 진행하고 나아가 참여예산제 정책을 산정하는 청소년의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다운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10월 24일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했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다가오는 희망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역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며 최소인원만 참가했고 다른 의원들은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재적인원 84명 중 68명이 참여했고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 4개가 모두 가결되어 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모든 과정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일반 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림 III-8. 본회의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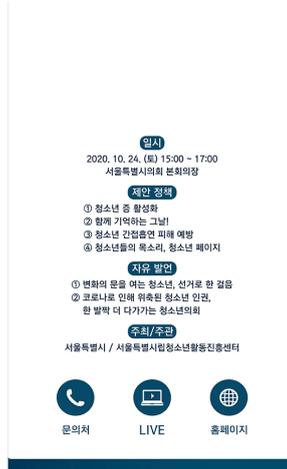


그림 III -9, 10. 본회의 포스터

본회의에서 가결된 4개의 상임위원회의 정책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 상임위원회 걸쳐-쇼(Culture-Show)는 성북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 역사 계획을 수정하여 “함께 기억하는 그날”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우리 역사의 중요성마저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8년 서울시에서 역사도시 서울의 시민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역사 문화 주관을 운영했지만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역부족 이었고 1회성 행사로 남은 상황도 안타까웠다. 이에 걸쳐-쇼는 청소년의 역사 인식과 진흥을 위한 사항,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개정, 역사 관련 달력 제작,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복지·권리 상임위원회인 복권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의회가 제안한 “청소년증 활성화 정책”을 선택했다.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매우 낮고, 청소년증의 혜택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있어 정책을 제안 했다. 청소년증 활성화 정책으로는 우편으로 발급권고를 통지, 혜택을 늘려 지사

체에서의 청소년증 활성화, 청소년증 홍보를 제안했다.

안전·건강 상임위원회 세레니티(Serenity)는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가 제안한 “금연구역 관련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예방”이라는 정책 제안했다. 최근 청소년 흡연자가 증가했고,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흡연을 지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금연 모니터링단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금연 장려캠페인 영상 제작과 금연 장려 이모티콘 및 배지를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진로 상임위원회인 청진기는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 들의 목소리, 청소년페이지” 정책을 선택했다.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를 종합 해서 제공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페이지를 개설해서 청소년참여활동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정보 부족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페이지는 청소년 참여기구 정보 제공, 자치구 청소년 참여활동 알림 게시판, 청소년 정책 제안, 청소년 관련 사이트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책들은 참여예산제로 운영하게 된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란 서울특별시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제출받은 22가지 정책 중 상임위원회 별 안건을 채택한 뒤 수정 및 보완 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된 정책을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직접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주어진 예산 전체 이천만원을 4개의 상임위원회가 나눠서 사용할 예정이다.

본회의 종료 2주 뒤인 11월 8일 오프라인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단 및 임원진, 운영사무국이 함께 참여예산제 운영회의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 별 청소년의원과 조력자선생님이 해당 정책 실현을 위한 운영 계획에 대해 열심히 회의를 했다. 직접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춰 어떻게 돈을 쓸지도 구성하는 회의는 처음이라서 재밌기도 했지만 어렵기도 했다. 개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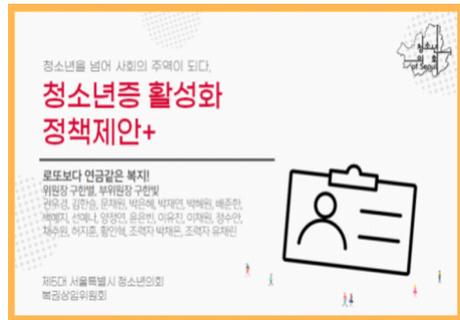


그림 III-11~14. 4개의 상임위원회의 정책

때 선사한 것처럼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추구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니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려 노력했다.

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가 계획한 정책 별 세부 진행은 다음과 같다. 문화상임위원회 킬처-쇼는 청소년 역사 달력 제작을 운영한다. 청소년이 알아야할 역사에 관련해서 달력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달력에 들어갈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위인을 정리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마친 상태이고 제작이 완성되면 시립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시설과 연계해서 캠페인 활동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달력 구성은 기본 달력에 제작 배경과 역사적 사건이 정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와 상임위원회 소개도 함께 정리되어있다.

복지·권리 상임위원회 복권은 청소년증 홍보 챌린지를 진행한다. 청소년증 발급

이벤트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급자를 대상으로 한정판 기념팔찌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소년 대상으로 21개 서울시립 청소년 센터와 연결해서 이벤트를 운영하고 팔찌는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이용해서 캠페인 활동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내 청소년 증 발급 시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발송도 진행한다.

안전·건강 상임위원회인 세레니티는 금연 캠페인 영상 및 금연 배지를 제작한다. 영상은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틱톡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짙막하게 유명인들과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기본 콘티를 전달하면 틱톡 유명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여 금연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섭외보다는 동참을 권유하는 캠페인이다. 배지는 제작 후에 시립 청소년 시설에 배포해서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자치구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로 상임위원회 청진기는 청소년 페이지 ‘청소년의 목소리’를 개설한다. 청소년 페이지는 자치구 청소년 참여활동 알림게시판 역할을 할 것이며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 관련 사이트를 안내하는 기능도 탑재할 것이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안에 별도페이지를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모바일 동시 지원 가능 형태이다. 청소년 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도 운영할 예정이며 홍보용 모바일 안내장, 포스터, SNS 등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의 마지막 활동은 성과 보고회 및 평가 회의이다. 개원 후 부터 지금까지 이뤘던 활동에 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본회의 때 가결된 정책을 정식으로 진행한 청소년참여예산제 성과를 보고한다.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끼리의 성과도 공유하는 대규모 워크숍 역할도 한다. 한 해 동안 함께한 의원들이 모두 모여 가장 신나게 노는 날이다. 올해는 성과보고회 예정일이 12월 말이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0년 만나는 게 당연했던 우리의 모든 활동이 화면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고 회의는 목소리보다 텍스트로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래도 우리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온라인 개원식을 시작으로 각종 온라인 회의에서 본회의까지 온라인을 활용하고 응용하며 우리의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예정되어있던 회의가 급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되어도, 모두가 현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했던 본회의가 온오프라인 동시진행으로 변경되어도, 물론 많이 아쉬워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곳곳하게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진행해왔다.

앞서 설명한 활동들 말고도 ‘청소년희망소리 3강이벤트’도 진행했다.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벤트였는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청소년이 만드는 참여챌린지-청소년사회참여, 함께할겜(game)’ 두 번째 영상에 출연해서 청소년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낸 정책들도 보았고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을 받아 의회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다.

## “언택트시대 청소년의 목소리는 온택트(ontact)로!”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의 슬로건이다. 내년에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은 온라인을 계속해서 병행해야할 것이다. 물론 회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단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이 어려웠고 비교적 회의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소년기관과 시설에서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사전 숙지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지자체에서는 오프라인 회의 위주의 예산 수립이 아닌 온라인회의 예산수립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줌(Zoom)의 경우 무료버전은 40분 이후 종료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추가로 온라인 회의실을 마련한다면 더욱 좋을 듯하다. 올해는 갑자기 맞이한 코로나로 정신없이 지나버린 한 해였다면 곧 다가올 2021년은 조금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 제4장 ‘청소년의 꿈과 권리’ 새로운 청소년 참여제도를 실현하다

————— 김태윤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



# 4

## ‘청소년의 꿈과 권리’ 새로운 청소년 참여제도를 실현하다

많은 청소년 활동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유익한 점도 많았지만 그 활동에 따르는 의문과 문제점을 발견할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친구와 함께 <차세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소년참여제도를 경험하며 느낀 점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는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지지해왔다. 점차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선거 연령이 18세로 인하됐다. 이후 2020년 4월에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만 18세 청소년이 첫 선거를 치렀는데 투표율이 67.4%로 전국 평균 투표율 66.2%보다 높았다. 이로써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선거에 앞서 정치와 그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경험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지 않은 게 현실이며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표면적인 문제 밑에는 근본적인 인식부족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식 부족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 수준이 국제적 표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49.9%는 ‘지역사회 문제해결’보다는 ‘다양한 경험 통한 자기계발’을 우선하였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수가 수십 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 비율이 1.9% 수준으로 극소수이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이 중복하여 참여하므로 보편적·실질적으로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더욱 적다.”

이처럼 청소년 참여 수준도 낮은 편인데 참여한 청소년들조차 절반정도는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고 있다. 근본적인 목적의식으로 인한 참여가 아닌 개인적인 자기계발차원의 참여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문제점을 좀 더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선행연구, 참여제도 분석, 설문조사, 실무자 면담, 현장 인터뷰 다섯 가지 연구방법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이미 출판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확인하면서 대조해보는 방법인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 10~15개의 논문 분석하면서 ‘청소년참여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청소년참여제도란 청소년참여기구와 기타 청소년 참여 활동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청소년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제도 자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예시로 주목한 청소년참여제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서울시 청소년 의회,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참정권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청소년참여제도를 참여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굉장히 동의한다. 청소년참여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기구 간 기능 중복, 일반 청소년의 보편적 인식 및 참여부족, 신규 참여 및 참여지속 유인 부재, 비체계적 전달과정, 위원 간 연령 차이 등이 언급됐다.

두 번째 방법인 참여제도 분석을 통해서도 다양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모집

연령이나 소속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곳은 한국청소년진흥원에서 주도를 하고, 어떤 곳은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도했다. 또한 근거 조례나 법률이 제각각으로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네트워킹이나 정책제안 등을 각 청소년참여제도마다 진행하여 활동이 중복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한다거나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한다 같이 목표도 추상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활동을 알기 어려운 목표였다.

하지만 참여제도 등장이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청소년참여라는 개념 등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차 개선을 해나가면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결과는 모두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230명이 참여했다. 먼저 '현재 전국에 있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여러 청소년 정치 참여기구가 존재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모두 알고 있다는 14%, 몇 개는 들어봤다는 69%로 응답했고, 나머지 17%의 학생들은 아예 모른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참여기구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아는 청소년은 10%, 어떤 건지는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청소년이 64%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6%는 아예 모른다고 대답했다.

1. 위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에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여러 청소년 정치 참여기구가 존재합니다. 혹시 이러한 참여기구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신가요?

- 1) 다 안다
- 2) 몇 개는 들어봤다
- 3) 아예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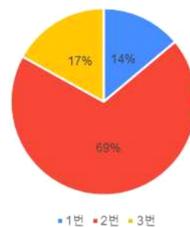


그림 IV-1. 설문조사 질문 ①와 응답

2. 위와 같은 참여기구들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지 알고 계신가요?

- 1) 정확히 알고 있다.
- 2) 어떤 건지는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 3) 아예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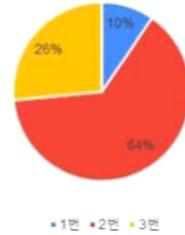


그림 IV-2. 설문조사 질문 ②와 응답

답변을 한 청소년 230명 중에서 지금 청소년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를 했다가 중단한 청소년, 해보지 않은 청소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지속요인을 알아보려고 현재 참여이유는 무엇인지, 인센티브요인을 알아보려고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참여이유로는 진로와 연관된다는 답과 타 학교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참여활동의 가장 큰 가치가 개인적 이유이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약 80%의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답변했다.

참여를 중단한 학생들의 중단 이유는 대부분 학업이라고 답했다.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청소년참여활동을 기재한다면 참여를 중단한 학생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절반 정도가 아예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왜 참여해야할지 모르겠다고도 답해 인식이 나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을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청소년 참여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활동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응답자 중 77%는 참여 경험이 전무하여 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 중인 청소년 대부분은 개인적인 목적을 뚜렷하게 가졌으며, 최대 참여 저해 요인은

학업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모색해야한다는 필요성도 확인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실무자면담을 진행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실무자들은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가면서 준비해도 모이는 인원이 300명이 채 안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긴다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견 전달에서 중간단계(담당 선생님, 팀장님, 부장님, 관장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참여제도 간 역할 중복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해야 할 지조차 모르겠다”는 의견을 줬다. “가장 시급한 것은 더 다양한 청소년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홍보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뚜렷한 목적성이 없는 활동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나”하는 의견도 줬다.

다섯 번째로 실무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인터뷰도 진행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효능감이 저하되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 물었고 답변은 아래와 같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간다고 학원가고 학교 동아리 한다고 빠지기 일쑤여서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일단 학교랑 학원 수업이 제일 큰 저해 요인이 아닐까 싶다. 솔직히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대학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 열심히 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하라는 소리가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 한다고 무시 안 당하면 다행이다.”

(J군, M대 1학년)

“고등학생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쁜 상황이다. 또한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의 무관심도 내가 성실히 안 나오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 내가 주변 지역 센터에서 청운위 활동하고 있어서 매주 토요일 회의하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맨 처음 나오는 반응이 ‘그게 뭔데?’고 두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시간 아깝게 그런 거 왜 해?’였다. 이런 현실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되게 곤란한 상황이다”

(H양, K고 2학년)

청소년들은 “활동을 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해라”라는 말과 “시간 아깝게 그런 걸 왜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이런 이유로 김도 빠지고 스스로도 왜 하고 있는 가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부족, 사회적 무관심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도 인터뷰 했는데 생각보다 연령 문제에 관한 답변이 많이 나왔다.

“내가 대학생이 된 후에 느낀 건데, 의견 낼 때 은근 어린 친구들 눈치가 보인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청운위는 위원장이랑 부위원장 친구가 모두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은 나 하나다. 내가 뭔가 의견을 내면 내 나이 때문에 통과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고, 또 더 어린 친구들은 내 나이를 말하면 어린 친구들은 또 나를 어려워한다.”

(J군, M대 1학년)

“청운위 활동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고등학생, 대학생 언니오빠들이랑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활동 초에 특히 힘들었던 게 마음속으로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도 모르겠고 몇몇은 진짜 무서웠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등학생, 대학생 언니오빠들은 예전부터 같이 활동해온 경우가 많으니까 서로서로 이미 친해서 그 사이에 중학생이 끼어들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랬다.”

(L양, S중 2학년)

나이가 많은 쪽도, 어린 쪽도 의견 조율과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 연령대별로 사회가 원하는 바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져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참여시스템 구축 정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참여기구 간 역할의 모호하고 중복되며, 참여활동 저해 요인인 학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또한 참여기구 위원 간 연령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중앙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제도 운영 내실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참여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년 참여권 홍보 강화,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주도적 예산 운영, 중앙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두 가지로 절차적 개선과 내부적 개선이 필요하다. 절차적 개선으로는 전달 체계 정비와 기능 분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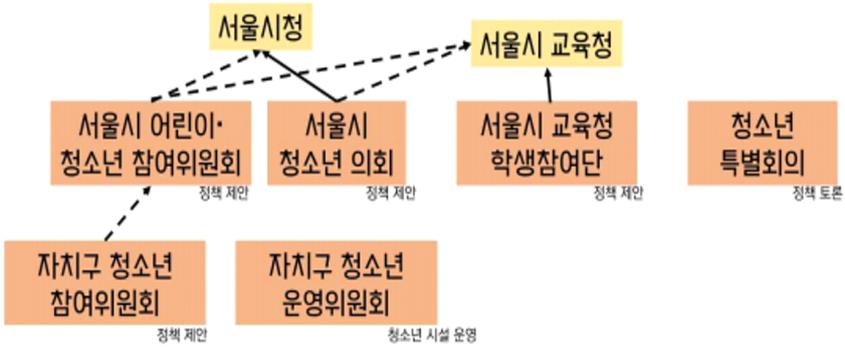


그림 IV-3.

위 그림은 현재 전달체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표로 나타낸 것으로 한눈에 봐도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하면 이를 서울시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갈 때도 있고 시청으로 갈 때도 있었다. 서울시 청소년 의회의 정책제안 절차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만 정책 제안이 갔다. 청소년 특별회의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어 애매한 입장에 위치한다. 이에 전달체계 정비와 기능을 분립하여 절차적 개선을 해본 표를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해 봤다.



그림 IV-4.

구 단위, 시 단위, 전국단위 층위를 확실하게 나누고 업무 분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했으며 서울시립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했다.

내부적 개선 방안은 내실화에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참여제도 활동 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참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신규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한다. 활동을 하다보면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참여제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며 추후에는 기재가 없다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임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책제안에 한해서는 기구 내에서 교급·연령별로 활동 단위를 분리해야한다. 대신 축제 같은 행사는 청소년 전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정책제안 같은 실무적인 진행을 할 때 나이 차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축제 때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통과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아웃리칭 같은 홍보 방식을 활용해야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봤듯이 다수의 청소년이 제도와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고 있다. 때문에 SNS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소년참여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 ○ ————— 제5장 ‘코로나 속 피어난 우리들의 자원봉사’ 희망을 이야기하다.

————— 임지우 | 동작고등학교 1학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



# 5

## ‘코로나 속 피어난 우리들의 자원봉사’ 희망을 이야기하다.

크로커스는 동작구 아동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봉사단이다. 크로커스라는 이름은 꽃에서 따온 것으로 ‘청춘의 환희’, ‘후회 없는 청춘’, ‘난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와 같은 꽃말처럼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청춘을 만들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과 봉사의 만남에 이보다 알맞은 이름은 없을 듯하다.

동작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자치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문화의 집 축제 때는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한다. 단원은 동작구 중·고등학교 및 만 24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2020년 현재는 청소년 16명, 대학생지도자 1명, 담당지도사 1명 총 18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운영분과·기획분과·홍보분과 3개로 나뉘어있다.



그림 V-1. 크로커스 단원들

2020년, 우리는 지역아동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공동체 놀이 활동 그리고 심리정서활동까지 세 가지로 나눠 봉사활동을 진행하려 했다. 설렘과 기대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2월, 크로커스 활동의 첫 문을 여는 마당으로 열었다. 올해 새로 선출된 단원들과 연임한 단원들이 직접 만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의 장점쓰기, 자원봉사 기초교육 듣기, 분과 나누기, 역할 분담하기, 연관계획 공유하기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함께 모여서 움직임을 해야 하는 신체활동과 공동체놀이활동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3월은 방황과 고뇌의 시기였다. 정말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고 모든 일에 망설이고 주저하게 됐다. 하지만 크로커스는 오히려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다. '그래도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크로커스의 봉사활동에 딱 맞는 의미를 담은 로고와 단체티를 제작하기로 했다. 대면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단체대화방의 그룹콜 기능을 사용하여 토의 진행했다. 약 10회가 넘는 투표와 꾸준한 토의로 정말 마음에 드는 로고와 단체티를 만들 수 있었다. 봉사활동에서 오는 뿌듯함은 아니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원들끼리 마음을 맞춰 만들어낸 활동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다. 어쩌면 이런 과정이 추후 진행된 비대면 봉사활동에 밑거름이 된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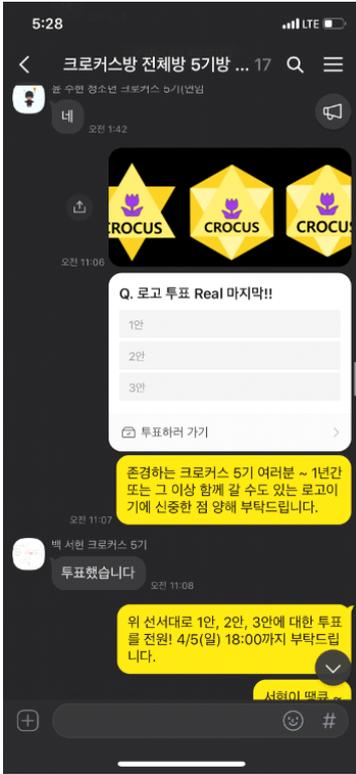


그림 V-2. 로고를 선정하는 단체채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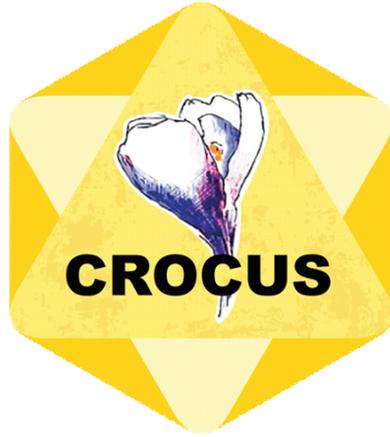


그림 V-3. 선정된 '크로커스'의 로고

크로커스 봉사활동의 의미가 담긴 로고와 티셔츠를 만든 후 그 다음 4월은 대면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랜 고민 끝에 5월 어버이 날 카네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원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고, 동작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기부 나눔 형태의 봉사활동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단원들이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으로부터 재료를 수령하여 각자 집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었고, 소수의 인원만 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쓸쓸하게 흘러보낸 봄의 따스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림 V-4. 5. 크로커스 단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금방 코로나19가 종식되겠지, 그럼 모두가 함께 만나 다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지 하던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비대면 활동의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됐다. 그러자 이제 모르겠다는 생각 끝에 자포자기를 넘어서 긍정적인 용기와 무모함이 생겨났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의미까지 있는 봉사활동은 뭘까,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 하는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

그 시작점으로 온라인을 떠올렸다. 온라인이라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영상인 만큼 크로커스만의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초반에 만든 크로커스 로고와 이전의 활동내역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했다. 6월에 영상 제작 활동을 시작했고, 7월에는 크로커스 활동과 청소년기희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담은 '크로커스 is 뭘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상 제작 과정은 정말 험난했다. 단원들과 담당선생님이 함께 구체적인 대본을 짰고, 각자 파트를 나눠 촬영한 후에 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모션을 취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편집했다. 혼자 찍는 영상임에도 스무 번 넘게 NG가 났고 개인 촬영 시간도 두 시간 넘게 걸렸다. 모든 영상을 모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다. 어쩌면 이 영상도 코로나 19로 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크로커스 단원들의 치열한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



### 크로커스 is 뭔들(1탄)

조회수 111회 · 5개월 전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크로커스#로커스의 5번째 이야기 ...

그림 V-6. 영상 '크로커스 is 뭔들'

이러한 몸부림은 집콕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스스로 생각해내서 지금 당장 실천하기라는 미션이었다. 공공성이라는 봉사활동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당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해 보고 싶었다. 어떻게든 비대면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시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단원들은 다양한 실천 활동을 생각해냈고, '의료진에게 편지쓰기', '일본 친구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 알려주기', '할머니 빨래 개는 것 도와주기', '부모님을 돕기 위해 분리수거, 설거지, 청소하기' 등 각자의 생각과 방식대로 열심히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크로커스 단원 모두가 동작구 의료진에게

편지를 쓰자는 의견이 나왔고, 곧바로 편지쓰기를 실천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마쳤고, 앞으로는 영상을 통해 동작구 의료진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끝으로 상반기 봉사활동의 1막이 끝났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또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봉사활동들은 단원들이 하고 싶었던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다. 단원들은 상반기 우리의 활동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봉사는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이에 우리는 진정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는지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크로커스는 동작구 아동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청소년봉사단임을 떠올렸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잇고 있던 동작구 아동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기로 했다. 어르년도 지쳐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신체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은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심리정서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고민 끝에 우리 함께 책 읽자! 활동을 생각해냈다. 코로나로 우울을 겪고 있을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을 선정하여, 책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직접 찍어 전달하고자 했다. 단원들은 직접 서점에 방문해서 후보가 될 책들을 골랐고, 투표를 통해 하나의 책을 선정했다. 아동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책인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그렇게 선정한 책은 ‘괜찮아, 넌 할 수 있어’이다. 이후 단원들은 녹음, 편집, 줄거리 소개, 대본 작성 등 각자 파트를 나눠 작업을 시작했다. ‘크로커스 is 된들’ 영상을 만들 때만큼이나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편집된 영상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 기쁨도 잠시 완성한 콘텐츠가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됐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최종수정을 거쳐 드디어 영상

이 완성됐다. 9월, 3개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도서를 제공한 뒤,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크로커스가 만든 독서교육영상을 온라인 링크로 전달했다. 책을 읽고 있는 사진과 소감문을 받아서 활동의 피드백도 확인했다. 우리 함께 책 읽자! 활동은 생각지 못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사실 반응이 그렇게 뜨거울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과 보호자들의 열띤 반응에 놀라기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동작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까지 받으니 정말 보람찼다.



그림 V-7~10. 크로커스가 제작한 독서교육영상을 보고 있는 동작구 아동들

10월에는 제7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추진단으로 활동했다. '인권감성아 깨어나라'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부스를 운영했다.



인권감성아 깨어나라 영상(1부, 인권 책갈피 만들기)  
조회수 없음 · 3일 전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구#청소년봉사단#크로커스#인권#인권페스티벌#동작구립#사당정  
집#청소년#봉사#제7...

새 동영상



인권감성아 깨어나라 영상(2부, 인권조례 퀴즈)  
조회수 없음 · 3일 전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대표 자치조직! 청소년봉사단 크  
실천하였습니다!

새 동영상

### 그림 V-11,12.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추진단 활동

인권과 관련된 영상을 사전에 제작했고, 이후 50명의 동작구 청소년 및 가정에 인권활동키트를 배포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1부 영상은 인권책갈피 만들기, 2부 영상은 인권조례퀴즈 활동으로 나누어 제작했다. 이 영상들을 제7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들이 영상을 통해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조례 이미지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말 감격스러운 활동이었고, 위 영상들은 모두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11월에서 12월에는 우리 함께 책 읽자! 시즌2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장 시사성 있는 이슈인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책 중에서 시즌1때와 같은 방식으로 책 하나를 골랐다. 최종 선정된 책은 ‘고사리손 환경책’으로 책과 관련해서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실천방법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에는 청소년이 직접 10가지 환경실천 다짐도 써보도록 기획했다.

2020년 활동 중 제일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한 가지 뽑자면 단연 우리 함께

책임자! 활동인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엉망이 된 봉사활동 계획 중 가장 크로커스의 정체성이 담긴 활동이기 때문이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3월부터 8월까지 비대면으로 다지고 준비한 팀워크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다. 비록 다 같이 한꺼번에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크로커스 단원들은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면서 신체적 친밀도 이상의 심리적 유대감을 쌓아왔다. 이는 봉사활동에 대한 진심을 하나의 목소리에 담아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2월에서 3월로 넘어 갈 때만 해도 정말 답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유 모를 용기와 무모함이 생겼던 그 순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냥 닥치는 대로 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값진 봉사의 기회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했던 모든 비대면 활동 덕에 우리는 마음속으로나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우리의 열정 씨앗이 희망이라는 열매로 피어나 보답 받았고 여전히 가슴에 진하게 남아있다.

앞으로 이러한 비대면 활동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활동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발전해야한다. 뒤돌아보면 도서 관련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정말 험난했다. 터빙 녹음에, 촬영, 편집, 효과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집중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영상을 짜야했다. 그러다보니 영상 하나에 7시간 이상의 공력이 들어갈 정도였다. 영상 속에 들어갈 기법과 촬영기술을 고민했던 기획 분과와 운영 분과는 머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했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 저작권이나 음원 사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효율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편집을 전담해야한다는 문제 때문에 담당 홍보 분과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12월 중순, 크로커스는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미디어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소양 교육을 받았다. 두 시간 동안 모바일로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 교육과정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먼저 비대면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지급 시간 규정과 학교 연계 봉사활동 인정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예산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작게는 모바일 유료 어플에서부터 크게는 영상 편집 기기와 관련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

비대면과 봉사활동은 뿔 수 없는 사이가 됐다. 물론 적응하기 위해 많은 고생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모든 단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버텨줘서 가능한 일이었다. 거기에 의견이 모아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준 담당지도사의 도움도 매우 컸다. 그 덕에 어떻게든 극복하자는 역동성 가득한 크로커스의 팀워크가 만들어졌고, 위기 속에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비대면은 장소의 한계를 극복해준다. 더 많은 봉사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위태롭던 그 순간, 비대면을 통해 봉사대상자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있다는 신념이었다. 앞으로 크로커스는 조금 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주체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한 장소에서 모이거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볼 순 없지만 우리 단원들과 더불어 동작구 주민들과 함께한 활동들과 지난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많은 동작구 주민들이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실행하고자 여러 플랫폼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그림 V-13,14. 청소년봉사단 크로커스



○ — 제6장 ‘나와 다음학교’ 함께  
우리의 꿈과 희망을 엿보다.

— 이진주 | 탈북청소년 다음학교 고등반  
탈북청소년



# 6

## ‘나와 다음학교’ 함께 우리의 꿈과 희망을 엿보다.

2020년 현재 나는 남북통합형학교인 다음학교에 재학 중이다. 작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나왔다. 그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다음학교는 북한, 제3국 출생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남한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형학교로 다양한 교육과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남북 교류 및 통일 이후의 환경을 준비하고 자하는 다음학교는 “다음 세대 청소년의 가능성을 신뢰합니다”를 비전으로 하여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학교’, ‘다음 세대를 키워 통일을 준비하는 학교’, ‘다음의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학교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과 인성을 교육기반으로 중요하다. 또한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다음학교에 입학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균형 있는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올바른 자아를 찾아 한국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다.

이에 다음학교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처음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 설립되었다. 2014년에 처음 남한청소년이 입학했지만 당시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과정을 유지하였다. 이듬해 2015년에는 제 3국 출생 청소년이 입학하였고 부분적 통합교육을 시도하였다. 점차 통합교육 전문 교육과

정의 필요성을 인식해가던 상황에서 2016년에는 남한청소년이 5명이나 입학하였다. 이에 2017년, 공공기관과 후원기관 그리고 후원자에게 통합교육을 선포하고 통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 전문 교사를 증원하고 회계 시스템을 분리하여 체계화하면서 다음학교 내부를 안정화시켰고 통합교육과정을 실행하였다. 통합교육 1차 포럼: 통합교육과정을 진행하였고 진로담당교사도 투입하였다. 2019년에는 통합교육과정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한 연합 학부모 모임을 발족하였다. 그리고 현재 2020년, 통합교육 2차 포럼: 특성화교육을 통해 통합교육과정을 열었으며 통합교육 전문교사를 증원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사회와 일반 기관과 함께하는 교육을 펼칠 것이며 통합교육과정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남북한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년부터 2025년에는 북한 거주 청소년과 교류하고 북한 내 학교와 협력하고자 하며 통합교육과정 매뉴얼을 보급화 할 예정이다.

Stage 1. 통합교육 태동



Stage 2. 다음학교 내부 안정화 및 통합교육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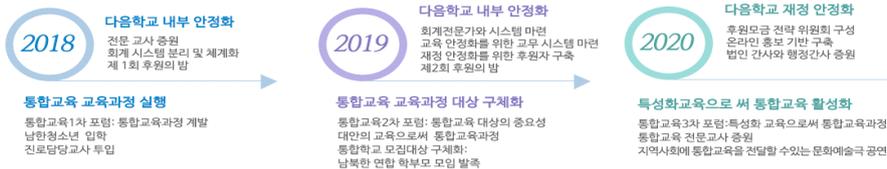




그림 VI-1~3. 다음학교의 통합교육 모델

공동체는 개개인 모두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만나 갈등과 이해를 겪으며 만들어진다. 청소년은 그 속에서 자기계발의 과정이 극대화되며 성장한다. 다음학교는 이러한 사고의 성장과정을 만들기 위해 지성교육과 공동체교육을 중심으로 일반 교과과정과 특화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남북 그리고 제3국의 청소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커리큘럼을 나누는 혁신적 교육과정을 통해 다음학교의 학생들은 서로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한쪽이 우월하다고 흡수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간다. 나아가 사고능력의 유연함으로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공동체적 사고를 가져 배움을 실천하는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일반 교육과정의 교과과정은 대한민국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수업을 한다. 비교과과정은 기본 교과 외에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체육, 음악, 미술, 댄스 등 예체능 수업과 미래교육을 위한 로봇, 컴퓨터, 중국어 수업 등을 하고 있다.

특화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타임캡슐'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건강한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현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진정한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발견해나가며 그것을

미래성장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부나눔’은 개인의 관심과목 별로 학생들이 짝을 지어 서로의 학습을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나가는 과정이다.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짝에게 알려주고, 모자란 과목은 짝에게 도움을 받으며 서로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고 관계도 깊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침열기’는 매일 아침 하루일과를 함께 시작하며 학생과 교사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고, ‘수요커뮤니티’를 통해 외부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반별 활동 발표회로 진행하기도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배낭여행, 예술로 표현하는 통합 축제, 과학·문화·역사·현장 체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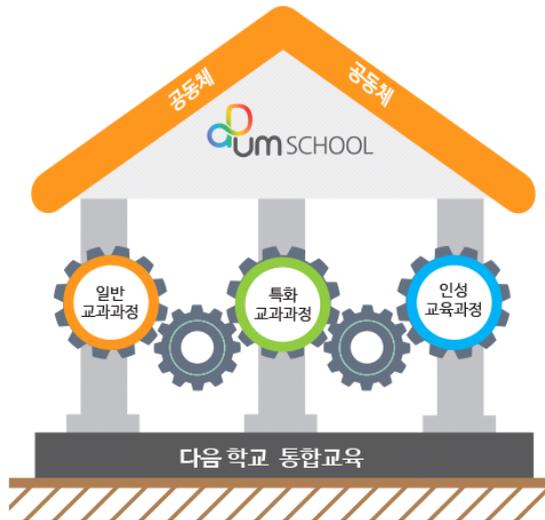


그림 VI-4. 통합교육과정



그림 VI-5. 통합교육과정 세부사항



그림 VI-6. 특화교육과정-타임캡슐



그림 VI-7. 특화교육과정-공부나눔



그림 VI-8. 특화교육과정-아침열기



그림 VI-9. 특화교육과정-수요커뮤니티

다음학교는 학생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활동도 제공한다. 이를 묶어 진로 네비게이션이라고 칭한다. 청소년들의 인생의 길을 좀 더 빠르고 폭 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진로와 취업’의 장단점을 탐구하여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후 선택한 진로나 취업에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 과정을 진행한다. 지원 분야를 향한 발전가능성과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장일지’를 써서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으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기록물을 만든다. ‘인생로드맵’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와 이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실질적인 계획서를 만든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좋은 습관을 만들며 주체적인 ‘자기관리’ 과정으로 나아간다.



그림 VI-10. 진로 네비게이션

이처럼 다양한 시도로 청소년의 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다음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뒤 면접과정을 거쳐야한다. 면접을 통해 학생의 지원 동기, 학업의지, 태도 등을 확인하는데 다음학교는 무엇보다 중도 포기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입학을 결정하며 탈북청소년은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입학이 가능하다.

최종입학이 결정된 학생은 배치고사를 보게 된다. 이는 분반을 위한 시험으로 입학 결정과는 무관하다. 다음학교는 학년제가 아닌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배치고사를 통해 반을 배정받게 된다. 이는 다음학교의 장점이기도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학습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기초부터 다질 수 있다.

### 코로나 위기 속 다음학교

2020년 2월 17일, 9명의 학생들의 졸업식이 있었다. 선생님들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다음학교의 졸업생들을 응원하며 새로운 신입생과 기존의 재학생을 위한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모두가 그러했듯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월 27일에는 제2회 남북청소년 통합교육포럼이 다음학교에서 개최됐다.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한동대학교 이정미 교수가 3개월 동안 진행한 다음학교 남북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교감의 통합교육의 핵심가치에 대한 발표와 교사들의 수업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부 인원만 참가하는 작은 행사로 축소되어 아쉬움이 컸지만 남북통합교육의 내실화 및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3월 24일, 다음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서울형 대안학교'란 학교밖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대안 교육기관이다. 2019년 1월에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9월에 통과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법적 근거로 진행한 사업이다. 다음학교는 약 1년에 걸친 과정과 경쟁을 거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교육과정이 대안교육으로서 공공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음학교가 이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교육기관이라는 역할도 다시 한 번 다짐받게 됐다. 또한 이번 선정을 통해 다음학교는 지속가능한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으며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학생들에게는 더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검정고시가 5월 9일로 연기됐다. 이마저 2주 추가 연기되기도 했다.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져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검정고시 지도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험 일정마저 연달아 연기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었다. 게다가 중국과의 교류가 제한되면서 가족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학생들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직접 피부로 와 닿았다.

하지만 다음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기 시작했다

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학교 보이는 라디오인 '다보라'이다.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만날 수 없게 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송을 진행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MC를 맡았다. 1회에서는 선생님이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실시간 채팅창으로 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2회에서는 선생님의 고민을 사연 형식으로 소개하면 학생들이 채팅창을 통해 상담을 해주었다. 그중 다음학교 최고의 상담가를 뽑기도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3회는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 미리 물어 사연을 받아 읽어주었고, 4회는 학부모 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체되면서 학생들이 핸드폰과 컴퓨터 화면만 계속 쳐다보게 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학부모에게 다음학교 온라인 수업 현장을 공개하여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행했다. 5회는 학교밖청소년 네트워크편이었다. 그전에는 모두 선생님들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학생 1명을 MC로 섭외하여 선생님 1명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소개하고 학교 에피소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대안학교마다 각자 개성이 뚜렷했으며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퀴즈와 게임까지 진행했다. 1부에서는 유튜브로 사연과 장점, 질문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줌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림 VI-11~15. 다음학교 보이는 라디오

11월 12일에는 '다음학교 통합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다음학교 통합축제는 남북한청소년 통합을 통해 통일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그 시작을 이어가기 위해 미리 찍어둔 영상을 송출하고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했다. 행사 전 티저 영상으로 사회, 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찍은 UCC 상영했고, 본 행사에서

는 뮤지컬 갈라쇼, 보컬과 밴드공연, 학생 나눔, 북 콘서트, 합창 등 미리 찍어둔 다양한 영상을 상영했다. 재학생과 현직 선생님은 물론 졸업생, 타 학교 학생들까지 즐기는 축제였다.

이처럼 다음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왔고, 열정 넘치는 온라인 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떨쳐냈다. 이는 다음학교의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다음학교를 다니며 앞으로 나아갈 길과 나의 존재가치에 대해 배웠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 통일이 왔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래서 통일부 공무원을 꿈으로 삼게 됐다.

다음학교의 학생들 중 취업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 나 또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통일부 공무원이 되려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공채 시험을 준비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나는 한국과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대학에 진학해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통일부 공무원이 됐을 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음학교에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거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자아를 찾아 갔으면 좋겠다.



그림 VI-16,17. 다음학교 전경

출처: 그림 VI-1~17. - 다음학교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 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유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유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유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 연구개발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해정

##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영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터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케팅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 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도와주신 분들 ◆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 윤 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과관리팀장)

오 주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책임행정원)

이 미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연구사업운영원)

홍 정 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연구사업운영원)

노 희 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청년인턴)

김 도 하 (작가)



연구보고 20-R25

---

##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인 쇄 2020년 12월 24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44)868-745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64-307-7 93330



연구보고 20-R25

##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0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